

# 도내 시장·군수들 무주로

### 제1차 회의 개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논의

전라북도 시장 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민선 6기 4차년도 제1차 회의가 29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4개 시·군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각 시군 현안과 홍보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무주~대구 간(85.2km)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성주~대구 구간(25km)만 중점 추진사업으로 분류됐다.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중 익

산~장수 구간과 대구~포항 구간은 완료됐으며 새만금~전주 구간(54.3km)은 실시설계 중이다.

황정수 군수는 "무주~성주 구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공동역량을 결집해 달라"며 "전라북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태권도성지 무주가 더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 응원 덕분에 무주는 하루하루가 새롭다"며 "187개국이 참가했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통해 태권도 성지임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은 물론,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올

렸고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무주반딧불축제 역시 대표 축제로 올라서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단체장들은 회의를 마친 후 살다리로 이동해 기념촬영을 한 후 반딧불축제 주제관 등을 둘러보는 등 무주읍 남대천과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참관했다.

단체장들은 "반딧불축제장을 둘러보면서 10년 연속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답다는 생각을 했다"며 "꼭 대표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무주가 세계태권도성지이자 반딧불축제의 고장으로 각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중앙부처 방문 국가예산 확보 총력

###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산서~성수 선형개량 2018년 국비지원사업 대상

장수군은 2017년도 특별교부세 대상사업과 2018년 국비지원사업을 발굴해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발품을 팔고 있다.

사업별로는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14억원) ▲장수 의암공원 보수정비(8억원) ▲방화2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사업(15억원) ▲월곡 토사재해 위험지구 정비(5억원)의 17년 특별교부세 대상사업과 산서~성수간 선형개량 위급도로 개선사업(20억원)

의 18년 국비지원사업이다.

한국의 장수군 기획조정실장(사진)은 29일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개별사업별 실무사무관을 만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장수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장수군 각종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수군에서 신청하는 특별교부세 및 국비지원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의 실장은 "앞으로도 주민편익과 행복 장수군을 위해 일지라가 창출되는 새로운 국비지원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중앙부처나 기재부 담당 담당실무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삼락농정 특화사업 2건 결정

###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시래기 가공공장 지원사업

진안군은 지난 28일 삼락농정 등 전북도 농정시책과 연계한 진안군 농정 발전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제3차 삼락농정협의회를 진안군청 부군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진안고원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사업'과 '시래기 가공공장 지원사업' 2건을 진안군 삼락농정 특화사업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진안고원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무진정축협을 통해 진안의 홍삼한

우 브랜드 사업단이 생산하는 홍삼한우의 품질관리와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안 홍삼한우의 육질분석을 위한 초음파 진단기 도입과 도시에 무진정축협의 직영판매점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다.

진안에는 고품질의 홍삼을 생산하는 150여개의 홍삼가공업체가 홍삼을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홍삼박)을 활용하여 만든 사료로 한우를 생산하면 품질이 매우 부드럽고 건강 기능성을 지닌 지방산과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래기 가공공장 지원 사업은 진안의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시래기용 무청을 계약재배로 수매하여 가공·유통을 통해 농가의 수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이다.

시래기를 가열하고 압축해서 급랭하는 가공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진안은 일교차가 큰 고원지대로 모든 농산물이 조식이 치밀하고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래기 역시 진안군의 특산물로 되기에 충분하다.

순정현 부위원장은 "전라북도 심사에 철저히 준비하여 최종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진안군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실버데이' 무주 군민화합잔치 벌여

### 군민의 장... 유상근 산업·신덕재 향토·김순아 효행장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한창인 무주가 29일 군민화합잔치로 들썩였다. '어르신들의 날(실버데이)'로 명명한 이날 행사는 무주읍 예체문화관 옆 주무대에서 진행됐으며 1,000여 명의 군민들이 함께했다.

실버태권도시범단 축하무대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행사에서는 군민의 장 시상식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부남면 유상근씨(58)가 산업군로장을 수상했으며, 안성면이 고향인 출향인 신덕재씨(56, 안양시)가 향토공익장을, 효행장은 무주읍 김순아씨(71세)가 받았다.

황정수 군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축제와 지역에는 큰 힘"이라며 "정성으로 준비한 오늘 하루가 여러분께도 큰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60여 명의 주민들이

이 함께 어울려 춤과 노래와 악기를 선보인 '부남디탈방아 맥막이놀이'가 펼쳐져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부남디탈방아 맥막이놀이는 무주군 부남면 주민들이 전승해오고 있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1호로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던 거리기원제다.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부장관을 수상하기도 했던 수작으로 해마다 반딧불축제에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외에도 재부산 출향인사 관소리단 공연, 한국판소리보존회 회원들의 가야금 산조와 병창, 마당극 '춘야 춘야 옥단춘야', 영동 난계 국악단이 무대를 찾았으며 오후 2시부터는 가수 이애란, 홍세민, 김태희, 박일남, 오현, 이정자가 함께한 무주군민한마당, 읍면 주민들이 직접 참가해 실력을 뽐낸 도전 가요연전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

장수군은 29일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산, 사업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운영기준 ▲자체 예산편성 기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내년 재정 운영의 방향을 민선 6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일자리 창출 지원과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건전재정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지방비조급과 행사·축제 예산의 선심성·남비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주민 생활의 편익과 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불법전용산지 한시 양성화

진안군은 내년 6월까지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담,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해온 일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일야의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신고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양성화를 희망하는 산지 소유자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일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농업인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

전라북도 농업인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가 29일 '농업이 미래다!'란 주제로 송하진 도지사, 황현 도의장,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이항로 진안군수, 농업인 등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북부미야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북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한 시군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서영화 소장과 전북농업기술원 이상환 과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특히 행사장 주변에서는 진안한우, 돼지, 홍삼과 인삼 제품 등의 시식회가 진행되어 농가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관을 운영하여 전북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시군 화합한마당 시간에는 흥미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올해 힘들었던 한 해 농사일을 모두 잊고 풍년을 기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홍로사과' 9월 홈쇼핑 방송 준비

### 4kg 제수용 5000상자 규모

장수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추진계획인 Level-up 장수사과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수사과의 유통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은 설 전인 지난 1월 장수사과와 홈쇼핑 방송 출하에 이어 추석을 앞둔 9월 장수사과 대표 품종인 홍로사과의 홈쇼핑 방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1월 장수군이 장수신농협농조합법인과 함께 추진한 홈쇼핑 론칭에서는 NS홈쇼핑과 이마트를 통해 후지사과 4.5kg의 상품 4,500상자를 판매, 1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농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홈쇼핑 방송은 중앙일보와 함께 T7커머스홈쇼핑을 통해 5회 녹화방



송할 예정으로 청취자 수가 제한적인 생방송의 단점을 보완해 추진할 방침으로 4kg 제수용 5,000상자를 장수사과 대표품종인 홍로사과로 유통할 계획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태홍

##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겨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삿포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휘트	